

# 생생리포트

- 2008년 하반기  
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  
박희석(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)  
한진아(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)

---

# 2008년 하반기

##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

---

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

박희석(연구위원·hspark@sdi.re.kr)

한진아(연구원·cycle13@sdi.re.kr)

- 
- 서울시민들의 2008년도 하반기 생활형편 전망하는지 심층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음
  -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현재 체감하는 경기를 알아보고 향후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  - 본 조사는 I. 서울지역 경제 현황, II. 시민의견조사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음
  - 설문방법은 우리연구원의 메일링 서비스 가입자와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가입자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, 그 결과를 취합하여 조사하였음

- 본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보지원팀 강형숙, 박진아 선생님, 서울시 정보기획단 서은지 주임님 그리고 온라인 설문에 응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---

본 설문조사는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, 「서울시정개발연구원」 및 「서울특별시」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

## I. 서울지역 경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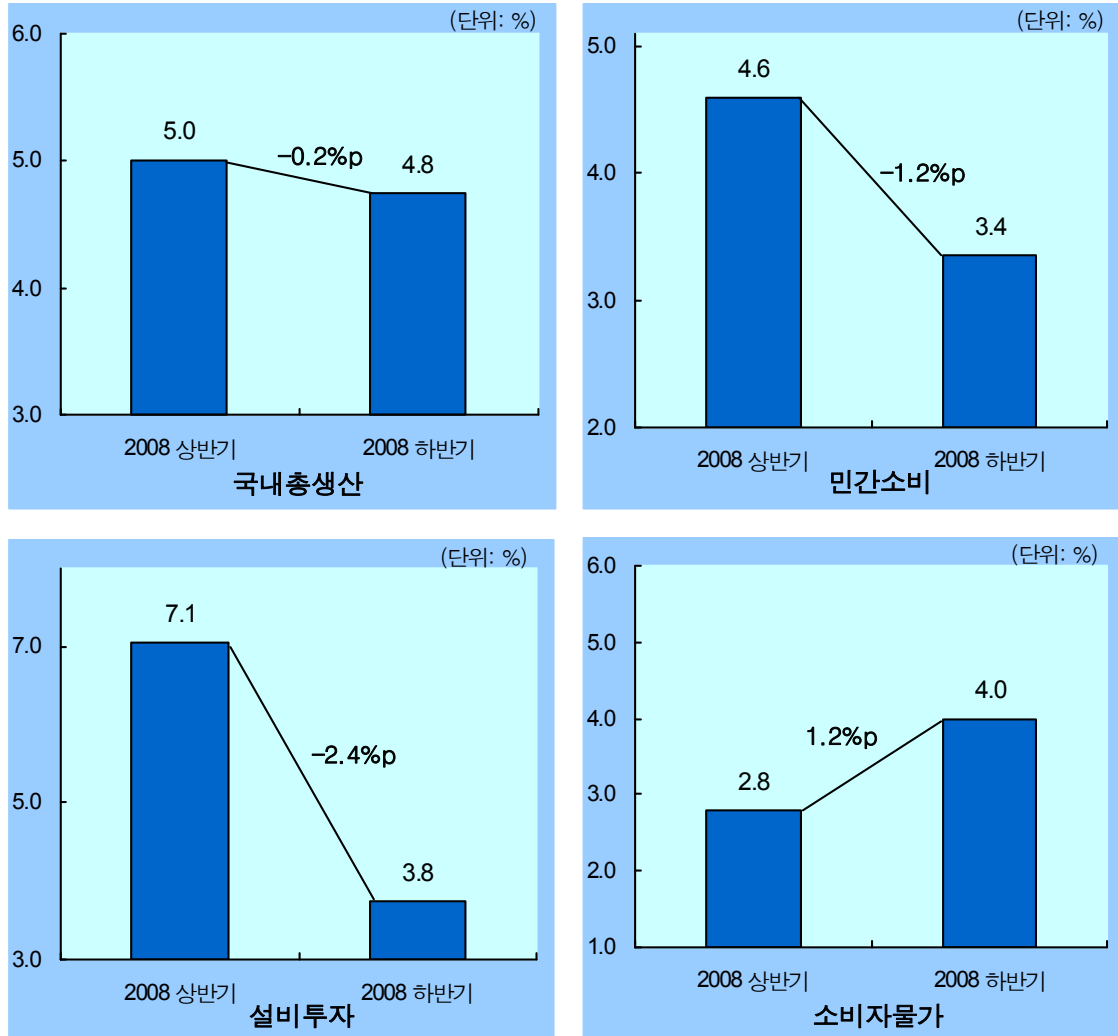
### 1. 국내외 경제여건

-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음
-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추이 지속과 대미 환율 상승으로 국내경제의 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환율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 폭의 개선여지가 존재함
- 반면, 고유가에 의한 전반적인 수입물가 상승으로 최근 물가상승률 확대 추세가 지속되어 내수위축 및 고용둔화 등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임
-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건 속에 건설 부문의 경우 국토균형개발사업과 같은 공공부문 주도의 기반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소지가 있음

<표 1> 2008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여건

	긍정적 요인	부정적 요인
국내 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환율상승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 개선 (-3,899백만\$(2008.1) → -195백만\$(2008.4))</li> <li>• 국토균형개발사업, 2기신도시 건설, 미군기지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물가부담 상승(4월 소비자물가 108.8로 전년동월 대비 4.1% 증가) 및 고용여건 악화</li> <li>• 한은의 유동성조절과 자금시장통합법(2009년)에 대비한 금융기관간 예금유치 경쟁으로 금리동결</li> </ul>
국외 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국 경제의 국내투자 확대와 소비 증가 등에 힘입은 지속적인 고성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가(5월 두바이유 119.50\$/Bbl로 전년동월 대비 54.85% 증가) 및 원자재가격 및 환율(3월 매매기준 환율 991.7원/\$로 전년동월 대비 5.5% 증가) 급등</li> <li>•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증가 및 미국 경제 둔화 우려</li> </ul>

## 2. 주요기관의 국내경제 전망



자료: 삼성경제연구소, 하반기 및 2008년 경제전망(2007.9), 하반기 세계 경제진단 및 국내 경제전망(2008.5)  
 한국개발연구원, KDI 경제전망 2007(2007.10), KDI 경제전망 2008 (2008.5)  
 주: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전망 치수와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전망 치수의 평균 값임

<그림 1> 2008년 경제전망 수치 변화

**한국개발연구원(KDI): 5.0% → 4.8%\***

- 민간소비는 경지회복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 및 실질구매력 증가에 힘입어 4%대 중반의 견실한 증가율을 기록
- 설비투자는 비IT부문 및 비제조업의 투자를 중심으로 6%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
-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부문을 중심으로 4%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, 미국 등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중요한 변수

**한국은행(BOK): 4.7% → 4.5%\*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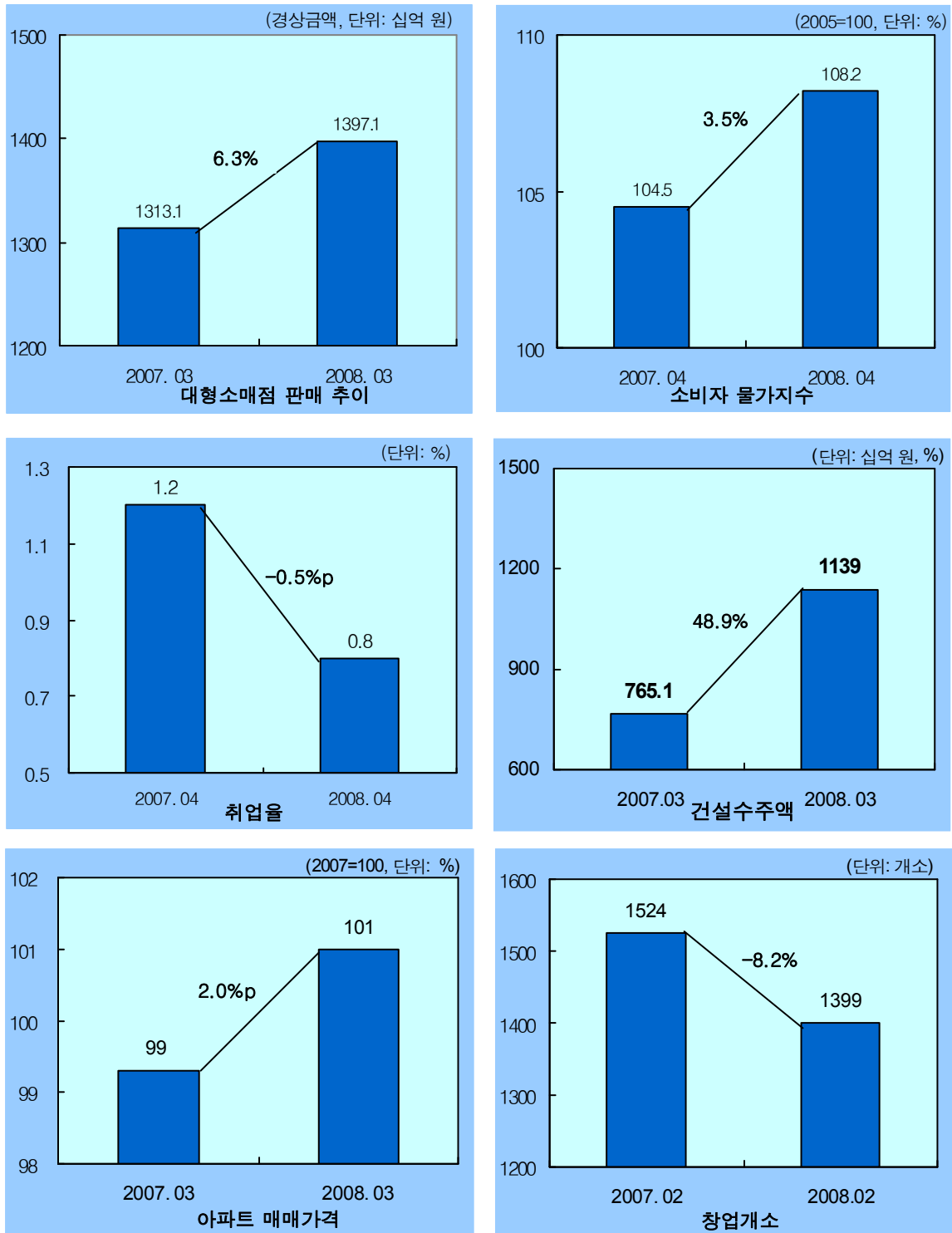
- 민간소비는 교역조건 악화, 부의 효과 축소 및 가계채무부담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, 설비투자는 선행지표 개선
- IT 경기 회복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여건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
- 건설투자는 주택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토균형개발사업의 본격화 및 비주거용건물 건설 증가 등으로 올해에 비해 소폭 개선되고, 수출은 미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올해보다 증가율은 낮아지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

**삼성경제연구소(SERI): 5.0% → 4.7%\***

- 서브프라임 부실문제로 미국경제는 둔화가 예상되나, 개도국의 성장이 지속되어 동 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.
- 따라서 수출전망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, 세계 IT경기 회복 등으로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해 4천억달러 돌파 전망. 건설투자가 회복됨에 따라 내수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됨

자료: 한국개발연구원, KDI 경제전망 2008 (2008.5),  
 한국은행, 2008 경제전망(2007.12),  
 삼성경제연구소,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 진단 및 국내경제 전망 (2008.5)  
 주: 부호 \*는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변동된 전망치를 나타냄

### 3. 서울의 주요 경제 지표 변화



자료: 통계청, 서울지방통계청

<그림 2> 서울의 주요 경제지표 변화

<p><b>소 비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서울의 2008년의 소비동향은 대형소매점의 전년동기비 판매율이 2007년 대형소매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</li> <li>· 대형소매점과 백화점의 판매증가율은 2007년 2/4분기 이후 다시 증가세로 들어서면서 3/4분기에는 대형소매점 8.1%, 백화점 5.1%의 증가율을 기록함</li> </ul>
<p><b>물 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동향은 2007년 들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08년 4월까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상을 나타냄</li> <li>· 전세 및 월세 등의 집세와 도시가스 등의 공공서비스, 국제항공료, 김밥, 갈비탕 등의 개인서비스 부분이 상승</li> </ul>
<p><b>취업율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취업자 증감율은 전년동월대비 0.5%p 하락하여 매년 취업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</li> </ul>
<p><b>건 설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설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48.9% 상승하여 건설경기는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</li> <li>· 발주자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수주액이 전월대비 163.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</li> </ul>
<p><b>아파트 매매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동월대비 2.0%p 상승</li> <li>· 강북지역은 강남에 비해 비율 하락이 크게 지속되고 있는데, 이는 강북지역의 매매가격 상승이 높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</li> </ul>
<p><b>창 업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-8.2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</li> </ul>

## II. 시민의견조사

- \* 조사대상: 서울시민
- \* 조사방법: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메일링 서비스 가입자와 서울시 홈페이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
(<http://research.joongang.com/survey.php?act=v&id=08-9-693>)
- \* 조사기간: 2008년 5월 14일 - 5월 31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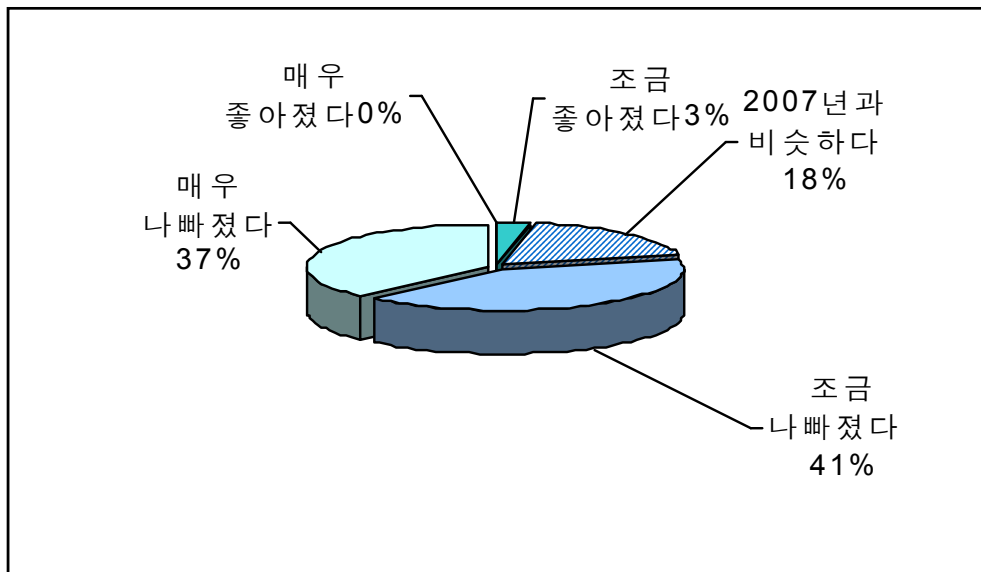
- 2008년 하반기 체감경기에 대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,362명이 응답하였음
-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으며, 조사대상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메일링 리스트와 서울시 홈페이지 가입자 그리고 각 구별 홈페이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
-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자 1,573명(67%), 여자 789명(33%)으로, 연령별로는 20대가 16%(387명), 30대가 33%(781명), 40대가 27%(629명), 50대 이상이 24%(565명)로 구성됨
- 설문 응답자의 84%가 30대 이상으로 경제활동층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
- 응답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강남구 157명(7%), 강서구 176명(7%), 노원구 154명(7%) 송파구 157명(7%)등으로 나타남



## I. 소비자 체감경기 진단

### ■ 서울시민 10명중 8명 상반기 중 체감경기 나빠진 것으로 판단

- 지난해와 비교해서 2008년 상반기 생활형편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? 라는 질문에 대해 ‘조금 나빠졌다’ 라는 응답이 41%로 응답율의 다수를 차지함(<그림 3> 참조)
- ‘매우 나빠졌다’ 는 응답이 37%, ‘2007년과 비슷하다’ 는 응답이 18%, 차지해 2008년 상반기 조사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



<그림 3> 생활형편 전망

■ 젊은 층 보다 50대 이상에서 체감경기가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

- 연령별 2008년 상반기 생활형편을 살펴보면, ‘조금 나빠졌다’ 는 응답이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됨(<표 2> 참조)
- 50대 이상은 2008년 상반기 생활형편이 ‘조금 나빠졌다’ 는 응답이 44.9%를 차지하였으며, 동일한 답변에 20대 38.1%, 30대 41.1%, 40대 39.5% 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
- 2008년 상반기 생활형편에 관하여 20대는 76.7%(조금 나빠졌다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수치임), 30대 81.6%, 40대 78.8%, 50대 75.9%로 30대에서 부정적인 응답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표 2> 2008년 가정형편 전망

(단위: 명, %)

구분		유효 응답수	매우 좋아졌다	조금 좋아졌다	2007년과 비슷하다	조금 나빠졌다	매우 나빠졌다
전 체		2,333	0	3	18	41	37
연령 별	20대	381	0.8	3.4	19.2	38.1	38.6
	30대	777	0.3	2.3	15.8	41.1	40.5
	40대	623	0.5	2.9	17.8	39.5	39.3
	50대이상	552	0.4	2.5	21.4	44.9	31.0
월 평균 소득 별	100만원 미만	382	0.5	2.6	12.6	34.8	49.5
	100 ~ 200만원	582	0.5	1.9	16.7	40.9	40.0
	200 ~ 300만원	580	0.3	2.4	17.8	41.7	37.8
	300 ~ 400만원	368	0.5	4.1	19.3	45.1	31.0
	400 ~ 500만원	193	0.0	2.6	25.4	44.0	28.0
	500만원 이상	187	0.5	4.3	25.1	40.6	29.4

주: 유효응답수는 무응답수를 포함한 값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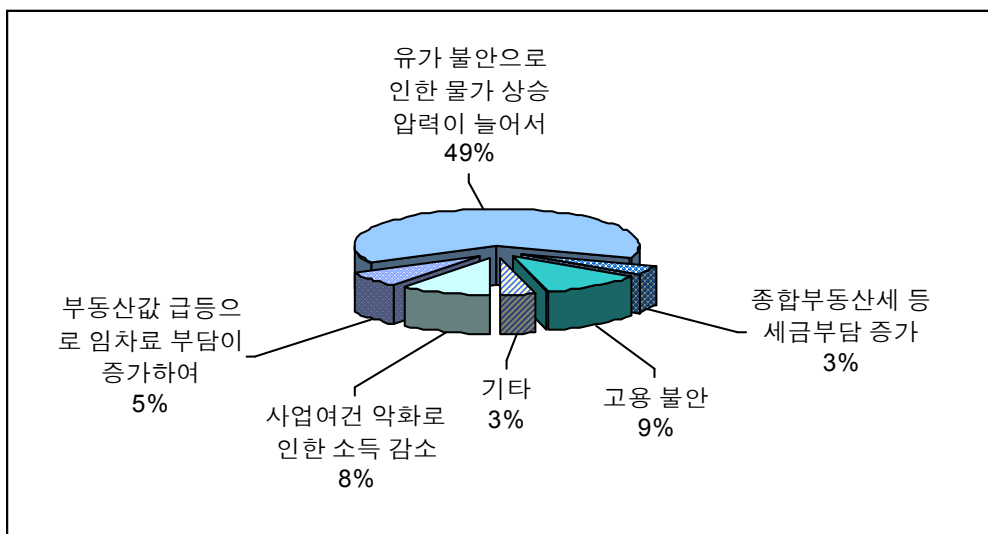
■ 소득계층별로 월평균 100만원 이하에서 체감경기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

- 월 평균소득에 따른 응답자들의 2008년 상반기 생활형편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‘매우 나쁘다’ 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49.5%가 ‘매우 나쁘다’ 고 응답하여 500만원 이상의 29.4%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임

- 그러나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2008년 상반기 생활형편이 '조금 나빠졌다' 라는 응답이 41.7%로 '매우 나빠졌다' 는 응답(37.8%)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전반적으로 월 평균소득의 구분없이 2007년에 비해 2008년 상반기 생활형편이 '조금 나빠졌다' 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됨

■ 상반기 중 체감경기 악화 요인으로 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

- 2008년 상반기 생활형편이 나빠진 이유로는 '유가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늘어 서' 라는 응답이 49%로 나타나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(<그림 4> 참조)
- 그밖에 '실업 혹은 계약 여건 악화' 와 같은 고용 불안으로 인해 생활형편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9%, '사업여건 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' 와 '부동산 값 급등' 과 같은 항목에 대해 각각 8% , 5% 응답하여 그 뒤를 이음
- 기타 이유로는 '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담증가' 등의 항목을 이유로 나타냄
- 생활형편이 좋아진 이유로는 '취업 혹은 계약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고용이 안정되어 서' 라는 응답이 1%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그밖에 '사업여건 개선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' 와 '부동산값 안정으로 임차료 부담이 줄 어서' 와 '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담이 감소' 하여 생활형편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1%로 조사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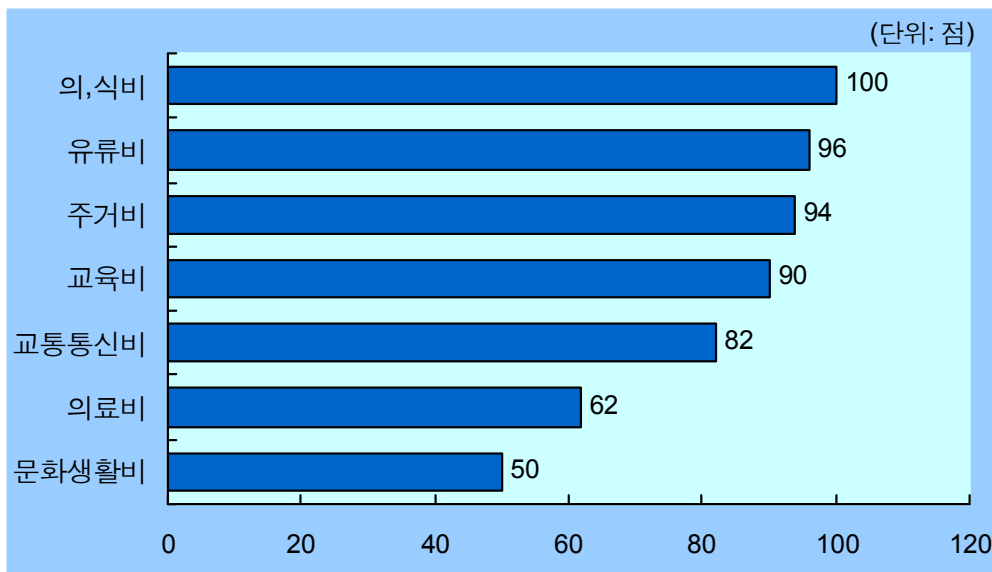
<그림 4> 생활형편이 나빠진 이유

■ 서울시민의 다수가 가계지출 중 의식비에 가장 큰 부담 느껴

○ 가계 소비 중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1순위로 의식비가 100점으로 나타나 서울시민의 다수가 의식비에 대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(<그림 5> 참조)

- 가계소비 중 부담되는 1순위로는 의식비(100점), 2순위는 유류비(96점), 주거비(94점)순으로 나타남

- 1~3순위를 통틀어 전반적으로 의식비, 유류비, 주거비가 가계소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생활물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그 다음으로 교육비와 교통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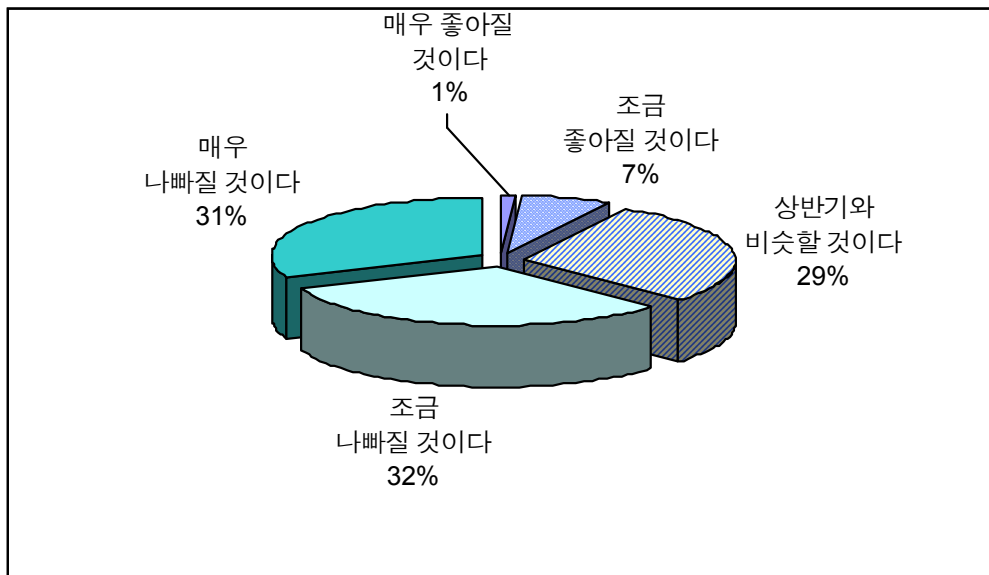
주: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(선택자수x순위요율)를 합산한 후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비교한 그래프

<그림 5> 가장 부담되는 소비 항목

## II. 소비자 향후 경기 전망

### ■ 서울시민 10명중 7명 하반기 체감경기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

○ 2008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2008년 하반기 생활형편이 어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%가 '상반기와 비슷' 하거나 '조금 나빠질 것' 이라고 응답함(<그림 6> 참조)



<그림 6> 2008년도 소비생활 전망

- '조금 나빠질 것' 이라는 응답은 32%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'매우 나빠질 것이다' 와 '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다' 의 응답이 각각 31%, 29%로 '조금 좋아질 것' 이라는 응답비율 7%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
- 2007년보다 2008년 상반기 생활형편이 '조금 나빠졌다' 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, 2008년 하반기 생활형편은 상반기보다 '조금 나빠질 것이다' 와 '매우 나빠질 것이다' 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2008년 하반기에도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됨

■ 연령대 별로 30~40대 하반기 체감경기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

○ 연령별로 2008년 하반기 소비생활 전망을 살펴보면, 20대는 ‘2007년과 비슷할 것이다’ 고 응답한 비율이 34.8%이었으며 30대와 40대는 ‘매우 나빠질 것이다’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5.8%, 32.2%로 조사되었고, 50대 이상의 경우 37.2%가 ‘조금 나빠질 것이다’ 라고 응답함(<표 3> 참조)

- 주요 소비계층인 30대, 40대의 경우 2008년도 하반기 소비생활에 관해 ‘매우 나빠질 것이다’ 라는 부정적인 응답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, 20대의 경우 다소 긍정적인 ‘2007년과 비슷할 것이다’ 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

<표 3> 2008년 하반기 소비생활 전망

(단위: 명, %)

구분		유효 응답수	매우 좋아질 것이다	조금 좋아질 것이다	2007년과 비슷할 것이다	조금 나빠질 것이다	매우 나빠질 것이다
전 체		2,350	1	7	29	<b>32</b>	31
연령별	20대	385	0.5	4.7	<b>34.8</b>	29.4	30.6
	30대	779	0.4	5.5	27.6	30.7	<b>35.8</b>
	40대	624	1.0	8.0	26.9	31.9	<b>32.2</b>
	50대이상	562	0.5	8.2	28.5	<b>37.2</b>	25.6
월평균소득별	100만원 미만	386	0.3	6.7	30.8	26.2	<b>36.0</b>
	100 ~ 200만원	589	0.2	5.4	27.8	32.8	<b>33.8</b>
	200 ~ 300만원	584	0.9	5.7	28.3	32.0	<b>33.2</b>
	300 ~ 400만원	373	1.1	8.0	26.8	<b>35.4</b>	28.7
	400 ~ 500만원	194	0.0	9.3	27.3	<b>37.6</b>	25.8
	500만원 이상	184	1.6	7.6	32.1	<b>36.4</b>	22.3

주: 유효응답수는 무응답수를 포함한 값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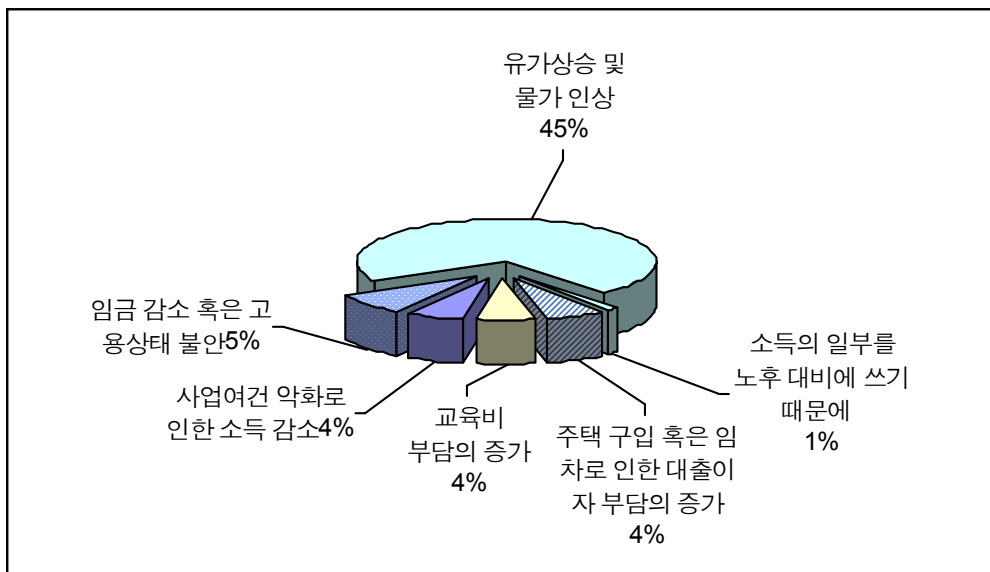
■ 소득계층별로 월평균 200만원 이하에서 하반기 체감경기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

○ 소득에 따른 응답자들의 2008년 소비생활 전망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‘매우 나빠질 것이다’ 고 답하였으며, ‘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의 소득자의 경우는 ‘조금 나빠질 것이다’ 고 응답하였음(<표 3> 참조)

- 연령별 소비생활 전망과 마찬가지로, 월평균소득별 소비생활 전망도 전반적으로 ‘나빠질 것이다’ 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

■ 하반기 중 체감경기 악화 요인으로 고유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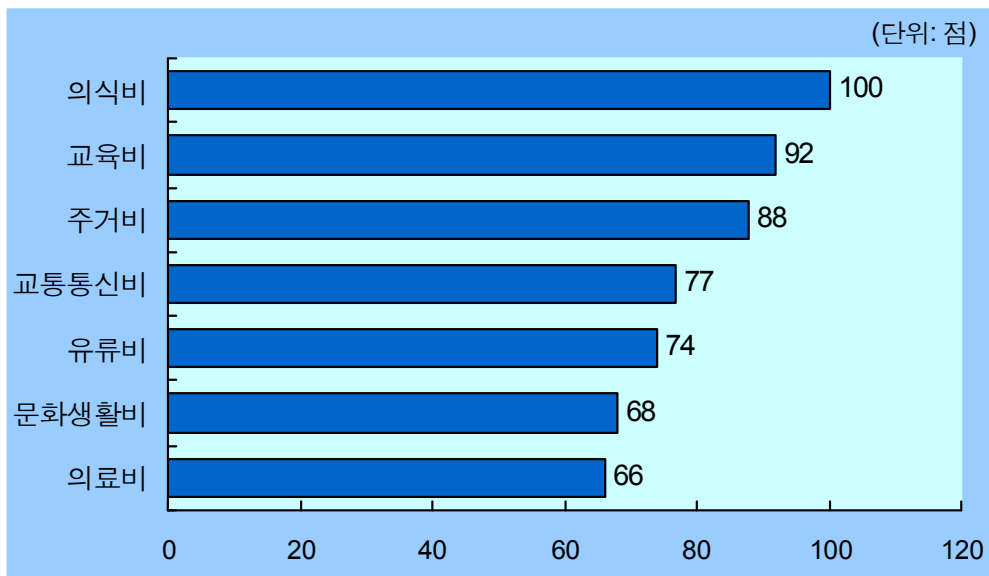
- 2008년 하반기 생활형편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로 45%가 계속되는 ‘유가상승과 물가 인상’ 때문이라고 응답함
  - 이어서 ‘임금 감소 혹은 고용상태 불안’ (5%)와 ‘교육비 부담의 증가’ (4%)와 ‘주택 구입 혹은 임차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’의 증가(4%) 순으로 나타남
- 2008년 하반기 생활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%로 응답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
  - 그 중 생활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‘사업여건 개선으로 인한 소득증가’ 2%를 이유로 들었음
  - 그 외 ‘임금 인상 혹은 직원 복지혜택 개선 때문’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%로 나타남



<그림 7> 생활형편이 나빠질 예상 이유

■ 서울시민의 다수가 하반기 가계지출 중 의식비와 교육비 부문의 지출을 늘릴 계획

- 2008년 하반기에 소비지출을 늘릴 계획이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‘의식비’와 ‘교육비’가 각각 100점과 92점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(<그림 8> 참조)
- 이어서 ‘주거비’ 88점, ‘교통통신비’ 77점, ‘유류비’ 7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주: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(선택자수x순위요율)를 합산한 후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비교한 그래프

<그림 8> 2008년 하반기에 소비지출을 늘릴 계획이 있는 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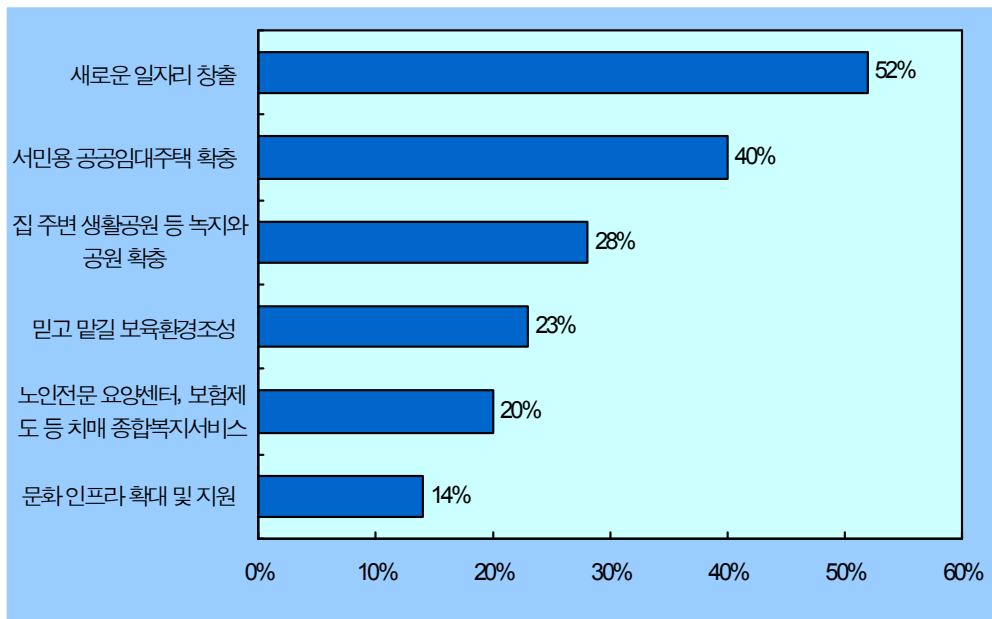
-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식생활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응답하였으며(25.8%), 100만원~200만원인 경우 주거비를(36.0%), 200~300만원인 경우 대출이자를(26.8), 300~400만원인 경우 교육비를(19.4%)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

○ 2008년 하반기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10%만이 주택구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음

- 이들 가운데 현재 ‘전세’와 ‘월세’에 거주하는 비율은 각각 7%와 14% 그리고 10%에 해당함
- 현재 ‘자카’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년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7%의 비율을 보임



- 하반기에 여행을 다녀올 갈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55%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그 중, 국내여행은 28%로 나타났으며 27%가 국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  - 국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30대가 31%, 50대가 25%로 나타났으며, 200~300만원의 소득자들이 23%의 비율을 보임
  
- 서울시책 중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‘새로운 일자리 창출’ 을 가장 많이 꼽았음
  - 뒤이어 ‘서민용 공공임대주택 확충’ , ‘집 주변 생활공원·동네 숲 마당 등 녹지와 공원 확충’ , ‘민고 맡길 보육환경 조성’ , ‘노인전문 요양센터·노인수발보험제도 등 치매 종합복지서비스 제공’ , ‘문화 인프라 확대 및 지원’ 의 순으로 나타남



〈그림 9〉 서울시책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항목